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열린신문

2026 vol. 369

FEBRUARY 2월호

말씀 마주보기

말씀 앞에 부드럽고, 죄 앞에 강한 사람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야 왕을 향해 성경 역사상 가장 찬란한 찬사를 보냅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는 그가 단순히 종교 제도를 수정한 정치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과 나라의 운명을 철저히 돌이킨 회복의 주인공이었음을 증언합니다.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기는 영적 암흑기의 절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 남유다는 솔로몬 시절부터 축적된 우상숭배가 독버섯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특히 므낫세의 악행은 성전 안에 이방 신상을 세우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은 먼지 속에 파묻혀 잊혔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남았으나 말씀의 통치는 사라진 시대, 그것이 8세 소년 요시야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변화의 불꽃은 요시야 18년, 그가 26세 되던 해에 피어올랐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 발견된 율법책이 낭독될 때, 요시야는 하나님의 심판 언약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수백 년간 굳어진 국가적 죄악을 자신의 죄로 껴안은 것입니다. 성경은 여선지자 훌다의 입을 빌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왕하 22:10).

여기서 우리는 영적 부흥의 핵심 원리를 발견합니다. 부흥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한 사람의 부드러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말씀 앞에 완악해진 마음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기름진 옥토’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회개는 눈물 젖은 감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에는 한없이 부드러웠으나, 죄에 대해서는 서슬 퍼런 칼날처럼 단호했습니다. 수백 년 묵은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가루로 만들었으며, 잊혔던 유월절을 다시 세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죄와의 ‘단절’에서 시작됨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요시야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의 작은 떨림에도 가슴을 치며 반응하는 사람, 그러나 삶에 자리 잡은 우상을 끊어내는 일에는 타협 없는 용기를 가진 그 한 사람을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때, 먼지 쌓인 율법책이 요시야의 시대를 뒤흔들었듯,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이 시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성진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사무국 **편집주간** 이성도 최선미 **취재팀** 김환 신미숙 이숙영 최희주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2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방배동 예배당을 거쳐 2002년 4월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회복된 성도가 가정을 살린다/회복된 가정이 교회를 살린다/회복된 교회가 세상을 살린다”는 목회 비전을 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총 8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본문과 오늘

위기의 시대, 아나돗의 밭을 사는 신앙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렘 32:6~7, 36~44)

김성진 담임목사

본문의 배경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었고, 식량은 끊겼으며, 백성들은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의 포로 됨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멸망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온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상실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은혜

이 말씀은 멸망의 현실을 분명히 직면하게 하면서도, 그 끝에 반드시 회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38절)라는 말씀은 출애굽 언약을 다시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확증하는 언약적 선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한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39절). 이는 우상 숭배로 분열되었던 그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징계와 고난이 결국 "복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죄에서 돌이켜 참된 생명으로 이끄시려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신실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절대 폐하지 않으시며, 필요하다면 가장 소중해 보이는 것들까지 무너뜨리셔서라도 백성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는 재앙과 절망으로 보이는 사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평안과 소망을 향한 시작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과 32장 42절이 증언하듯,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십니다. 성도가 겪는 위기와 상실은 버림받음의 표지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나돗의 밭, 믿음의 선언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을 말로만 선포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행위의 예언'이라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 뜻을 드러내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상식과 현실 계산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곧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상황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리석은 선택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그 땅을 팔려 한 이유 역시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었고, 주변 사람들 모두 이 거래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 땅을 살 권리는 감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실제로 은을 지급하고 증서를 작성해 밭을 사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이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장차 포로에서 돌아올 날을 내다보며 분명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 "성은 포위되고, 빵은 끊기고
> 말씀의 사람은 감옥에 갇혀
> 모든 끝이 보이던 그때
> 하나님은 책망 대신
> 다시 언약을 꺼내 드셨다.
>
>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
> 심판의 한복판에서
>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다.
>
> 멸망을 앞둔 땅에
> 은을 지급한 선지자처럼
> 오늘 우리는
> 믿음에 투자하라 부름받는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게 하신 것은 멸망 이후에 있을 회복을 믿고 미리 살아내라는 신앙의 요청이었습니다. 황폐해질 그 땅에서 다시 사람들이 돌아와 밭을 사고 정착하게 될 미래를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이 눈앞의 현실과 인간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이 행위의 예언은 위기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한가운데서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의 절망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부르십니다.

회복을 향한 믿음의 투자

성도의 삶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 투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교회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선교와 전도에 힘쓸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에는 그것이 어리석고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작은 회복의 징표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인생을 투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가뭄의 끝을 확신했던 것처럼, 성도는 미미해 보이는 하나님의 신호 속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산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향해 "기쁨으로 복을 주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땅에 심겠다"(41절)라고 약속하십니다. 작은 순종과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전 존재를 걸고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삶을 넘어 오늘의 교회들을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신뢰를 잃고, 비난과 공격을 받으며, 장래가 어둡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한마음과 한 길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드시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성전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소중하기에, 하나님은 때로 고난과 상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십니다. 모든 고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을 주기 위하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시대에 다시 아나돗의 밭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비웃고 어리석다 말해도,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선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작은 순종을 통해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맺음말

지금은 분명 쉽지 않은 때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여러 문제와 절망, 질병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히려 이 절망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나 자신을 위해 움츠리고 쌓아 두었던 것을 이제는 펴십시오. 지금은 세상의 계산과 인간적인 위기관리로 안전을 확보하는 때가 아니라, 영적인 땅을 사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아나돗의 땅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년교구섬김조직

형식의 교구제를 넘어, 내용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

변화는 기대와 설렘만큼이나 긴장과 낯섦을 동반합니다. 우리 교회는 7년 만에 단행된 교구 개편이라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서를 잃지 않고 한 해를 마무리하였으며, 이제 또 다른 한 해를 소망과 책임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년 목양의 기본 구조로 선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구제는, 한 교회를 더 작고 가까운 공동체로 경험하게 하면서도 전체 교회의 일관된 목양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수록 개인은 익명화되기 쉽지만, 성도들이 교구 단위로 묶일 때 교역자와 중직자들은 성도의 신앙 상태와 가정의 형편, 삶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고 돌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목양이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돌봄과 동행으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은 제도 그 자체에서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일관성과 교역자 간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중심의 목양이 함께할 때 비로소 건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교구제는 시행과 동시에 끊임없는 점검과 보완을 요구하는 목양의 틀이며,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 구조입니다.

또한 교구제가 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성도들이 어느 교구에 소속되어 있든지 동일한 목양과 돌봄을 받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리더십 아래에서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서로 호흡을 맞추어 목양할 때, 교구 시스템이 지닐 수 있는 한계는 최소화될 수 있으며, 교구 소속 여부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 전체는 보다 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시기를 지나며, 우리 공동체가 제도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로 뿌리내려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한 몸으로 응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사역하게 될 일곱 교구의 담당 교역자와 섬김이들을 소개합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편집부)

1교구

장로 금성철 장로
황철호 장로

총팀장 장정수 집사

남성총무 이계상 집사

여성총무 강민옥 권사(정)
이수경 집사(부)

회계 홍영이 권사(정)
권금옥 집사(부)

서기 전상연 집사(정)
양규남 집사(부)

2교구

장로 성경열 장로
김춘경 장로

총팀장 나동훈 집사

남성총무 백인붕 집사(정)
신준영 집사(부)

여성총무 임채자 권사(정)
나근주 권사(부)

회계 김효숙A 집사(정)
위은정 집사(부)

서기 김기현 집사(정)
박광명 집사(부)

3교구

장로 이동훈 장로
박희준 장로

총팀장 성시권 집사

남성총무 백승태 집사(정)
남기웅 집사(부)

여성총무 김은자 권사(정)
김근화 권사(부)

회계 백미연 집사

서기 류정진 집사

4교구

장로 박기준 장로
이영춘 장로

총팀장 양석주 집사

남성총무 이승근 집사(정)
조경원 집사(부)

여성총무 신현자 권사(정)
김명자G 집사(부)

회계 오희열 집사

서기 조경원 집사

5교구

장로 구융회 장로

총팀장 강원진 집사

남성총무 윤형진 집사(정)
유병재 집사(부)

여성총무 박정화 권사(정)
박은정 권사(부)

회계 김혜정B 권사

서기 김용준 집사

6교구

장로 김기현 장로
김용연 장로

총팀장 안성철 집사

남성총무 박용진 집사(정)
박창일 집사(부)

여성총무 김명정 권사

회계 백은정 권사

서기 최미선 권사

7교구

장로 박정갑 장로
김대영 장로

총팀장 오기용 집사

남성총무 황선범 집사(정)
최용호 집사(부)

여성총무 장동금 권사(정)
최인선 권사(부)

회계 황성순 권사(정)
신미현 집사(부)

서기 김동응 집사

새해말씀사경회 취재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살다

드륵… 드르륵… '한파특보' 안전 안내 문자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맹추위와 함께 1월 20일부터 사흘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새해말씀사경회가 열렸다. 첫날 일찌감치 종종걸음으로 본당에 들어간 필자는 잠시 멈칫했다. 아직 사경회가 시작하려면 30분 넘게 남았는데, 꽤 많은 성도가 보인다. 매서운 한파도 말씀을 향한 성도들의 열망 앞에서는 힘을 잃은 듯하다.

말씀 앞에서-

사경회 때마다 필자가 놀라는 게 있다. 사경회 주제 말씀과 주제 찬양이 '찰떡'이다. 이번에도 사경회 주제 말씀을 위해 특별히 곡을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어진 담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첫날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출 1:3~6)이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세상이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향해 먼저 보여주셔야만 믿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영적 질서가 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숫양'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먼저 순종해야 한다.

둘째 날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딤후3:15~17)이다. 많은 질문을 시작으로 설교가 이어졌다. '설교가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가?' '사제 중심으로 독점되었던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오늘 우리는 왜 여전히 주일 한 번의 목회자 설교에 의존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옛날만 기억하여 신앙을 연명한다는 건 모순이 아닌가?'

성경은 본문 말씀처럼 완전무오하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은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목회자는 주일 말씀을 통해 방향을 제시한다. 다음 순서는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가까이하며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셋째 날은 '말씀이 되신 예수님'(요 1:1~3, 14)이다. 전날 '성경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게 들어있는 성경의 충족성'을 선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답변이 셋째 날에 이어졌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는 광야에서의 시험, 기도, 그리고 십자가이다. 광야의 시험에서 첫 인류가 사단에게 패배한 것과 달리,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이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당하는 시험 앞에서 무엇으로 승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고 평생 기도하시는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기도의 참된 모습은 역대하 7장 1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곧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삶 전체로 지켜내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전통이나 형식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 전체에 담긴 기도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일점일획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삶을 깊이 탐구하고 묵상함으로써, 그분이 보여주신 말씀과 기도의 본을 따라야 한다.

사경회 말씀은 어떤 핑계도 허락지 않을 만큼 단순 명료했다. 각자의 소견대로 살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다. 설교자의 한 번 설교에 매달리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하며 분투해야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본은 예수님께서 이미 보이셨다!

지체들 이야기-

사경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 태도를 점검하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한 성도는 "먼저 보여달라고 기도해 왔던 저를 발견했어요. 제 영혼은 피폐해졌지요. 이제 기도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요. 순종 후 숫양이 발견됐다는 것이 많이 와닿았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성도는 설교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성경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음을 되새기게 되었으며, 성도 각자가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공동체 차원에서의 말씀 훈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성도도 있었다. "'성경을 읽는 유익' 구역공과와 사경회까지 말씀의 중요성이 이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주 바라봄 성경읽기에 충실해야겠어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신앙의 기준을 새롭게 붙들게 되었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한 성도는 "정말 혼돈의 시대인 것 같아요. 온갖 정보들이 난무하고, 영상 알고리즘은 생각을 고착시키도록 늘 유혹하죠. 하나님 말씀은 먼데, 이것들은 강력하게 손을 내밀어요. 사경회를 통해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가기 쉬운 시대에서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지 정신 번쩍 드는 시간이었어요"라고 말하며, 기록된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전했다.

취재: **신미숙 기자** pacific1009@naver.com

정기 공동의회

지난 12월 28일 정기 공동의회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는 시편 93편 1~5절을 본문으로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한 교회'라는 제목의 담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교회 사역 조직이 기존의 '5센터·21위원회' 체제에서 '5사역위원회·35부' 체제로 개편됨에 따른 정관 개정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2025년 감사보고와 결산보고, 2026년 예산안 보고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사역 장로님의 보고가 있었고,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진행된 정관 개정에 대한 투표 결과,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성도들을 포함하여 총 2,207명 중 2,189명이 찬성함으로써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전도회 모임

지난해 9월 발족한 전도회의 첫 전체 모임이 1월 11일 진행되었습니다. 각 전도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교역자의 설교 말씀을 경청한 후, 앞으로의 전도회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연령대로 구성된 모임인 만큼, 신앙과 삶에 대한 공통된 고민과 질문을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 간의 교제와 의견 나눔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요사역

4일(수) 릴레이기도 헌신자 모임
6일(금) 백향목 팀·조장 기도회
6일(금)~8일(주일) 청소년부 겨울수련회 및 회심집회
8일(주일) 전 교구 팀장 모임
20일(금)~21일(토) 청년부 목양1국 수련회
22일(주일) 예배음악세미나/학부모 설명회
25일(수) 기도사역부 전체 스태프 MT
27일(금)~28일(토) 청년부 목양2국 수련회

추천도서

성경 읽는 법

–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데이비드 플랫 지음 | 윤종석 옮김 | 두란노

…이 책은 종교적 의무로서의 성경 읽기 지침서가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다. 내 느낌과 주관, 그럴 듯해 보이는 통찰을 추구하는 '나 중심 성경 읽기'를 떠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말씀을 대하도록 이끌어 준다. 또한 성경 읽기의 기본, 방향, 태도를 잡아 주는 믿을 만한 4단계 실용적 지도(MAPS)를 소개한다. 바로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며, 기도하고, 나누는 것이다. 각 장 말미에 기도와 질문 코너도 수록해 이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래 성경 공부는 딱딱하고 기계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가득하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보화를 누리라! 그분의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분의 말씀을 꾸준히 제대로 읽기만 하면, 그 사랑이 우리 삶을 반드시 살리고 변화시킨다.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출판사 서평)

북한선교세미나 후기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다

한선영 장년2교구
sylovers85@gmail.com

작년 북한선교세미나에 우연히 참석하게 된 것을 계기로 북한선교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지난여름에는 미션홈 1기 아웃리치에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선교에 대한 관심이 점차 깊어졌고, 이번 세미나 역시 그 연장선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계획 없이 참석한 자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 제 마음과 시선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은 해외 주재원으로 생활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내며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할 때, 종종 "북한에서 왔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불편한 마음으로 반응하던 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북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한민족을 향한 연민과 기도의 책임을 외면했던 저의 태도를 깨닫게 하셨고, 북한과 북향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북한선교세미나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북한선교가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북한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인식해 왔지만, 실제로는 북향민들의 삶의 배경과 사상, 특히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 살아온 이들의 사고방식과 당에 대한 강한 충성심은,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준비하지 않으면 마음을 나누기 어려운 현실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최광 선교사님은 28년 동안 북한 및 북향민 선교를 감당해 오신 열방빛선교회 대표이십니다. 선교사님께서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북향민들을 북한선교 사역자로 양육하셨고, 350여 명 중 250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며, 그중 70명 이상이 북한선교 사역자로 세워졌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하루 8시간 성경 통독과 2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 북향민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 가운데 사역자와 목회자가 세워졌다는 간증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참된 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북향민을 더 이상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섬길 수 있는 사역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후 한국 입국 전 약 3개월간 머물며 매일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돌봄과 양육을 받는 '미션홈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아웃리치로 직접 방문하여 인사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섬김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시설) 주일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일, 교회를 소개하고 신앙 공동체로 연결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역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검정고시 등 학업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한 학습 지원 사역 역시 열린교회가 북한선교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소중한 섬김의 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 마음에 깊이 남은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북한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 열린교회와 함께 그 일을 해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린교회 안에 북한선교 사역이 더욱 깊이 자리 잡고, 더 많은 성도가 이 부르심에 함께하여 기도로, 섬김으로,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바라봄성경읽기 후기

주바라봄 성경읽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최승하 장년2교구
hopang-e@hanmail.net

안녕하세요. 저는 장년 2교구 최승하 집사입니다. 박정혁 집사의 아내이고, 딸 박하현(초6), 아들 박하서(초3), 이렇게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어릴 적 돌아가신 엄마와 온 가족이 함께 드렸던 가정예배의 추억이 너무나 그리워서 가정을 이룬 후 가정예배를 몇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교회 세미나에서 남편이 '153가정예배'에 대해 듣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다시 가정예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저녁 9시를 전후로 식탁에 둘러앉아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9월 주바라봄 성경읽기가 시작되면서 교회의 방향성에 발맞추어 주바라봄 성경읽기가 말씀 순서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두 아이와 함께 읽기에는 말씀 범위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게 함께할 수 있는 방향을 여러모로 모색해야 했지만,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에 익숙해졌던 터라 저희 부부는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무작정 시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매일 3~4장의 분량을 3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말씀을 읽은 후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때론 형식적이기도 하고, 훈육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져 피곤함이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보자! 신약을 다 읽을 수 있다! 선물도 준단다!!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못 읽어 보충 시간을 활용하면서 2024년 12월 31일 가족이 모두 첫 번째 주바라봄 성경읽기를 완주하였습니다. 그때 아이가 받은 주바라봄 키링이 지금 제 핸드백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성경 읽기를 마치나 했는데 다시 제 손에 1월 1일을 시작으로 모세오경을 범위로 한, 두 번째 성경읽기표가 주어졌습니다. 주님께 죄송하지만, 예배위원분들이 성경읽기표를 나눠 주시는 것을 멀리서 발견했을 때 정말이지 안 받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3개월을 마무리했는데 또라니! 더는 못 하겠다!!가 제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다시 주어진 성경읽기표를 보자 죄송하지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말씀의 은혜보다 다시 아이들을 끌고 가야 하는 부담감이 먼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모세오경이 3월 30일까지이니 나머지 구약을 올해 안에 모두 끝내시겠구나! 생각하니 이만 멈추어야 하나 진심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작했으니, 이 은혜의 방편을 한번 끝까지 따라가보자!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 주바라봄 성경읽기를 함께 이어갔습니다. 말 못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와 아이들은 모세오경과 나머지 구약 성경을 2025년 12월 31일에 완독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말은 누군가의 간증 속 기적 같은 상황에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1년 3개월의 주바라봄 대장정을 마치는 순간, 저 깊은 내면에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가 터져 나오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꽉 붙들고 이끌어 주셨구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니 포기했다면 절대 느끼고 경험하지 못했을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말씀 통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고 무작정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열 번 실패하면 열한 번 째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주바라봄 성경읽기와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송구영신예배의 말씀과 "인생의 바다에 말씀의 닻을 내리자!"는 담임목사님의 외침이 제 마음에 자연스럽게 새겨지며 소망이 되었습니다.

손에 다시 들린 2026년 주바라봄 성경읽기표를 받은 지금 저는 다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전의 부담감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일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온 교회와 함께요. 아울러 교회학교 주바라봄 성경읽기의 범위를 조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이들은 조정된 말씀 범위를 여유롭다 못해 아쉬워하며 즐겁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올해 주바라봄 성경읽기와 함께 제겐 하나의 작은 꿈이 생겼습니다. 예전 구역에서 성경을 소리 내어 읽고 녹음해서 자녀들에게 보내주신다는 한 집사님의 나눔이 문득문득 마음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올해 저는 엄마인 제 목소리로 성경을 녹음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읽는 신약의 복음서와 전도서, 시편을 녹음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성경스토리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창세기와 지혜를 가득 담은 잠언을 녹음해도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엄마가 되고 싶은 꿈을 실현하는 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목사안수 후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김민성 청소년부3국·교회학교 디렉터
immanuel0912@naver.com

사실 저는 원래대로라면 한 해 전에 목사 임직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도사 고시를 1년 미뤘습니다.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스무 살에 신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 대한 고민은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목회를 제 생업으로 삼아 평생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1년을 늦추고, 더 진지하게 그 고민 앞에 섰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 제목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처럼 교회는 너무 큰 고민거리이면서도, 동시에 너무 사랑스러운 곳이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제목을 다시 붙들며, 교회를 다시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붙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바울은 은사의 문제로 갈등하던 고린도 교회에 "몸"의 비유로 답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12절).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13절). 교회는 결국 한 사람의 종교적 취향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한 몸이라는 선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한 몸으로 함께 서는 일을 자꾸 피하고 싶어질까요. 공동체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려면 시간을 내고, 체력을 쓰고, 때로는 감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했습니까. 은사가 문제라기보다 그 은사를 통해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혹은 내가 낮아지는 불편함을 감당하기 싫은 마음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원리는 때로 분명합니다. 내가 불편함을 감당하면 누군가는 편할 수 있고, 내가 편함을 고집하면 누군가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할 때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바울은 "지체"의 비유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17, 21절). 교회에는 약한 지체도 있고 강한 지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합니다(22절).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은 위계를 세우고 비교하는 방식이지만, 바울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것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25절).

저는 사역 현장에서 이 '다름'이 얼마나 자주 충돌하는지도 봅니다. 교회학교는 행사가 많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식사 메뉴 하나, 순서 하나, 동선 하나에도 서로 다른 생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함이 곧 교회의 문제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다양함이 몸의 본성이고, 그 다양함의 목적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올해 제 마음에 남았던 드라마의 한 대사가 있습니다. "유채꽃이 혼자 피나? 꼭 떼로 피지. 혼자였으면 골백번 꺾였어." 저는 이 말을 곱씹으며, 교회가 얼마나 '떼로 피는 은혜' 위에 서 있는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껏 든든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옆에 있는 '그 지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르고, 때로는 연약해 보이기까지 한 그 지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27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더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골 1:18).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권위이시며, 동시에 교회의 근원이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 몸이… 자라"게 된다고 말합니다(엡 4:15~16).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돈의 힘으로, 분위기의 열기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방향과 생명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신부"의 이미지로 말합니다(계 19:7, 21:2). 교회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냄새나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어도,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민이 되면서도, 동시에 사랑이 됩니다. 바울은 은사의 논쟁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31절).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길"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요일 4:20).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선언 앞에서, 저는 목사 안수의 자리를 다시 생각합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교회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더 사랑하도록 부름받는 자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교회는 제 고민입니다. 동시에 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사랑의 한가운데서 저는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서로의 지체이며,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안수 후기

그분만이 저의 실존입니다

조일권 청년부목양3국·복지
paulcho0305@gmail.com

2025년 10월 14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운을 입고 무릎을 꿇었을 때, 어느 목사님의 손바닥이 제 머리 위로 얹어졌습니다. 그 무게는 육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나온 제 시간들의 하중이었고, 앞으로 견뎌야 할 생의 중력이었습니다. 안수식이 끝나고, 저의 현실은 비로소 팽팽해졌습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몰랐으나, 분명 길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분명 다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관념이 아님을, 무시간(無時間)의 허공에 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비루하고 냄새나는 저의 인생 구체적인 시간 속으로 기어이 들어오신 분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죄를 짓고, 후회하는 저의 일상, 그 끈적거리는 시간의 틈바구니마다 당신의 현존을 밀어 넣으셨습니다.

때마다 아프고, 처절했습니다. 그분은 다가오시나, 저는 물러났습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하나님의 피가, 성령 하나님의 숨결이 저의 생 위로 포개어졌습니다.

인도자 목사님이 공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는… 목사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득한 선언입니다. 그 소리 위에 가련한 인생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길은 보입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의 발자국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흔적입니다. 그 앞에 놓인 현상과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 인생의 껍질 위로 틈입하셨고, 마침내 나를 감싸안으신 그 사건만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오늘을 삽니다. 대단한 소명이나 거창한 비전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을 말하기엔 제가 너무 비루합니다. 제 비틀거리는 걸음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걷고 계심을, 그 엄연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뼈저린 현실입니다. 그분만이 저의 실존이기에, 저는 오늘도 밥을 먹고, 숨을 쉬고, 강단에 기어올라갑니다. 그것으로 족하고 싶습니다.

새가족

▶▶ 장년

김성우(88) 이수연(91) 박선영(93)
진미선(90) 조성세(69) 황혜경(75)
김삼열(94) 심은희(64) 박재광(85)
유하은(93) 한명남(57) 이예진(89)
박선규(92) 배종연(88) 차현정(75)

▶▶ 청년

강예찬(01)
이윤아(93)

예배음악세미나

찬양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

-예전(禮典) 안에서 찬양의 이해와 실천

일시 2월 22일(주일) 오후 4시
장소 본관3층 예배실
대상 예배와 찬양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강사 김성진 담임목사

교사대학 후기

대체될 수 없는 자리, 교회학교

이신영 영아부 교사
2656837@hanmail.net

저는 2023년, 이 지역으로 이사 오면서 출석할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우선시한 기준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열린교회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유년부 예배를 드렸을 때 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화려한 영상이나 어떤 도구 없이도 바른 자세로,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뒤에는 아이들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며 섬기시는 교역자분들과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교회학교 학부모로서 3년의 세월을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심집회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유년부 교역자분들과 선생님들께서 부모인 저보다도 더 간절하게, 눈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반성과 함께 저 역시 교회를 위해 무언가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가능하다면 교사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만 두고 있던 결단을 올해 용기를 내어 실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대학에 참여하며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영아부 아이들 또한 예배를 참 잘 드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이 어린아이들이 분리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착석이나 예배 참여가 제대로 될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있었지만, 첫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의문은 사라졌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미 그 안에 교회와 예배, 기도와 찬양, 헌금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고, 놀랍게도 아이들 사이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친구를 보며 자리에 앉기도 하고, 율동하는 친구를 따라 하기도 하고, 반가운 얼굴로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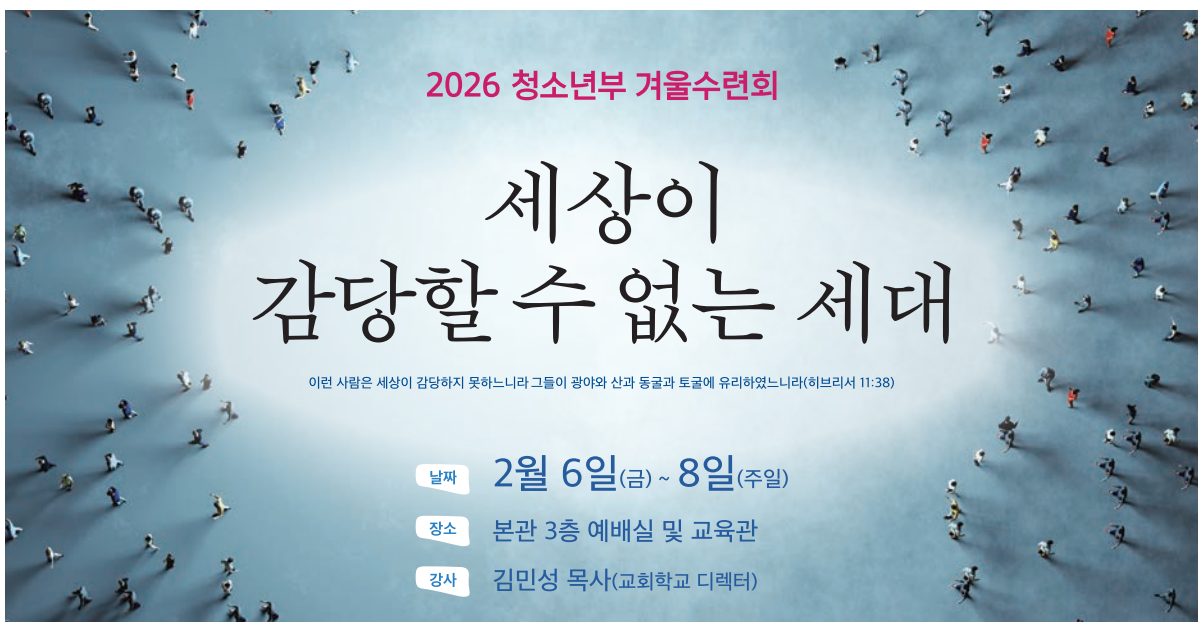
영아부에는 부모와의 분리가 처음이거나, 아직 어떤 기관에도 다녀보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곳은 가정 이외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공동체가 교회이며, 더 나아가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이 그 자체로도 매우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 더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랑을 부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열린 4주간의 교사대학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열린교회 교회학교가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진심인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잘 갖추어진 체계와 준비, 관리와 방향성에 대한 고민, 삶과 예배의 연결이 모두 녹아든 구조와 역할 분담을 보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간과 마음을 모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사역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들 멋지게 척척 맡은 바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시는지. 이는 진심이 아니면 해내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제 아이들을 안심하고 교회학교 공동체에 맡길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진심으로 섬겨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대학 4주 차 시간에는 함영주 교수님께서 'AI 시대의 다음 세대 신앙형성: 영아~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교사의 새로운 사명'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AI 시대에는 더욱 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교사의 사명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체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영혼과 영혼의 만남일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일에 도착하여 함께 헌금하고 선생님과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 반가운 인사와 만남, 포옹, 친구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 헌금을 들고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순간, 공과 시간에 선생님과 주고받는 따뜻한 눈빛까지, 이 모든 것이 더욱 값지고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면, '한 번이라도 더 손잡고 기도해 줘야지', '한 번이라도 더 눈을 마주치고 진리를 이야기해 줘야지'라는 생각과 다짐을 했습니다.

열린교회에 와서 성도로 지내며 모두가 열심히 섬기고, 각자의 자리를 찾아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교회 안에서 저 역시 저의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시작이지만, 교사대학은 제 마음을 단단히 다지고 열심히 섬기고자 결단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섬기는 자리라기보다는, 아이들을 통해 저 또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 마음이 정말로 따뜻해집니다. 앞으로 교역자분들과 선생님의 진심에 저의 진심 또한 더해 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

진짜 황금률이 기대는 것은?

글 · 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세속적 황금률은 주고 받는 대상이 같다.

내일부터 관세 10%! 그래? 나도 내일부터 관세 10%!

사과를 수확했어! 나도 한 개, 너도 한 개!

기독교의 황금률은 주고 받는 대상이 다르다.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에게 공경받길 바라고

내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며,
내가 잘못한 대상에게
용서받길 바란다.

기독교의 황금률은
아래로 흘려보내며, 위에서 흘러내리길 바란다.
기독교의 황금률은 위에 계신 분의 의지에 기댄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잠언 19장 17절)

한 컷 말씀

사진: 김범무(장년4교구)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히브리서 6장 19절

믿음일기

이곳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

우한석 장년3교구
woohs670@hanmail.net

아버지는 황해도 안악이 고향이셨으나 6·25 사변 이후 남쪽에 남게 되시며 실향민이 되셨습니다. 일가친척이 거의 없으셨던 아버지는 성인이 되어 자수성가하시어 가정을 이루셨고, 저는 외가댁의 보살핌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외가댁이 의왕시 청계동, 청계사 인근에 자리한 영향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불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환경에서 60년 가까이 세상일에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헛됨과 공허함,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 일의 부담까지 커지며 삶이 점점 버겁게 느껴지던 중, 주변 지인들의 지속적인 전도를 통해 교회에 나가보아야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나가게 된 예배가 2022년 송구영신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는 제 삶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자리였고, 이후 제 마음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러 교회를 찾아 예배에 참석해 보았지만 마음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2023년 2월 12일 주일, 처음으로 열린교회를 찾아 10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아들이 열린교회 청년부에 속해 있어 함께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안내받아 3층 예배실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고, 그날 선포된 시편 119편 92~93절 말씀은 고난 중에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고백으로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날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상처 입고 지쳐 있던 제 마음 깊은 곳을 정확히 어루만지시는 듯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깊이 몰입한 나머지 예배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깊이와 살아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처음으로 광명의 빛을 마주한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일까?'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주일예배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살아온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주님을 부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며, 나와 함께하시고, 죄인 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앙의 길에 들어섰기에,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새가족·새신자반과 성장반을 거쳐 교리반까지 수료하였고, 이후 신임제직 교육을 통해 서리집사로 임명받았습니다. 또한 학습과 세례를 받았으며, 세례받을 때의 감격은 지금도 제 마음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경회와 주바라봄 기도회에 꾸준히 참여했고, 수련회와 교회 행사에 스태프가 필요할 때마다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분들, 하나님을 알고 싶고 참된 행복을 찾고 싶은 분들께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열린교회로 오십시오!"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은혜로운 날들만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의 어려움은 여전히 주어졌습니다. 늦은 나이에 버거웠던 직장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고, 그 밖에도 삶의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다가왔습니다. 당시에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열린교회에서 드렸던 첫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으로 다가오셔서 제 삶을 오래 지켜보신 분으로서 건네주신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배의 감격이 마음에 남아, 일상 속 어려움 앞에서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내 힘으로는 버거웠던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담담히 풀려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스스로 해결하려다 지치곤 했지만, 이제는 기도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신다는 확신 속에서 순종과 감사가 삶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열린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봉사하고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신앙의 길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배우고 자라가야 할 것이 많은 초신자이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불안과 갈급함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평안과 소망으로 바뀌었고, 방향을 잃었던 삶에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에 모시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날마다 믿음이 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빚어져 가리라 믿습니다. 나의 삶에 베풀어주신 은혜와 구원을 감사드리며, 남은 생애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어머니와 가족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진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융회 이동훈 박희준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효 김남근
부목사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심재운 정대한 김하림 이규희 최영광 조일권 오세광 김민성 정호석 최은광
협동목사	정창욱
전도사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 곽혜정 김현희 김다영 김진하이 찬 이순이
교육전도사	최현성 박주광 원준식 곽승훈 권세원 이해선 한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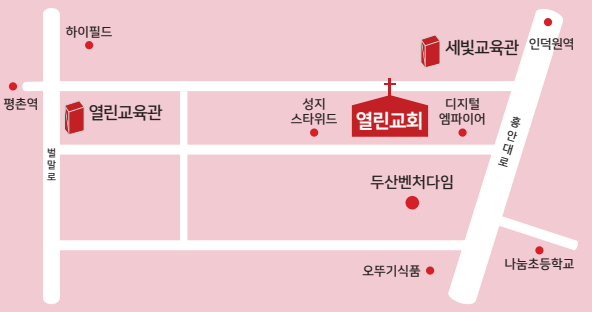
파송선교사

A국: 1 units / **B국**: 1 unit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태국: 김요한 & 이진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8시(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10시(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2시(본관 3층 예배실)
주중예배	수요예배	오후7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목요직장인예배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기도회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금요기도회	오후8시(본관 3층 예배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10시(본관 1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회	오전10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토요강단기도회	오후4시(별관 2층 교육실4)
교회학교	청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1층 교육실1)
	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2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4층 교육실3)
	유치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3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2층 교육실1)
	영아부	오전10시/정오12시(별관 1층 교육실2)
	사랑부(취학부)	오전10시(별관 1층 교육실1)
	사랑부(청년부)	오전10시(별관 2층 교육실4)
외국인	외국인팀	정오12시(세빛교육관 5층 외국인실)
백향목 공동체	봄·가을학기	금요일 오전10시30분(본관 1층 예배실)
금요 테마학교	미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1)
	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2)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